

전 남

목포신항~상하이간 항로 추가개설

6000t급 컨테이너선 매주 1회 이상 정기운항... 국제 물류중심 발판 마련

목포신항과 일본을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간 국제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잇달아 개설되면서 목포신항이 국제 물류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지방항만청, 목포신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해포해항운(유)과 국제 정기 컨테이너 대중국 항로개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상해포해항운은 중국해운 그룹의 계열사로 목포신항에서 중국 대륙과 상하이로 연결하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고 6000t급 컨테이너선을 투입,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항할 계획이다.

중국항로 개설로 그동안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다른 지역 항만을 이용했던 광주·전남권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수출·입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개설된 4개 항로와 함께 연간 5만TEU(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목포 신항은 현재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의 국제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됐으며 올해들어 현재까지 2만9000여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항로개설은 목포시와 전남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비롯해 목포신항만(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앞으로 목포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 목포신항만(주), 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광주·전남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항로개설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매일 개별업체를 방문해 화물을 유치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사랑의 연탄' 배달

광주지검경찰청 목포지청 (지청장 김진수)과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 이혁영)는 지난 10일 온금동·목원동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새 얼굴

"고객만족 고품질 전기공급 최선"

송 환 기 한전 목포지점장



"고품질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송환기(56) 한국전력 목포지점장은 "목포지역은 지난 1911년 호남지역에서 가장 먼저 전기가 공급돼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다"며 "서남부 지역의 전력공급 중심사업소로서의 역할과 함께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목포지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 출신인 송지점장은 전남 기계공고와 조선대 전기공학과, 조선대 산업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85년 한전에 입사해 전남본부 계통운영팀장·설비관리팀장·순천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나주 혁신도시 공정률 50% 넘어서

나주 공동혁신도시 전체공정률이 지난 2007년 11월 착공한지 3년 만에 50%를 넘어서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LH공사 구간 60.7% ▲전남개발공사 구간 23.4% ▲광주도시공사구간 53.9%를 달성해 전체적으로 50.8%를 달성했다. 연말까지 64%의 공정률을 확보하기 위해 덤프트럭 74대·포크레인 44대 등 하루 150여대 중장비가 동원되고 있다.

공동혁신도시 조성공사는 현재 9개 공구로 분할돼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사학연급 등 7개 기관이 들어서는 LH 1-1공구는 83.5%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공사는 오는 2012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광역교통망인 나주시청에서 혁신도시간 5.2km 연결도로 공사도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모습을 드러내는 등 15% 이상 빠르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전기관의 청사설계도 빠르게 진행돼 지난달 4일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청사건축 허가가 난 것을 시발로 오는 29일 국내최대 공기기업인 한국전력, 전력거래소가 교통개선대책평가 예정돼 있다.

/서부취재본부=최승필기자 srchoi@

완도농협, 다문화가정 친정어머니 만남 '호응'

농협 완도군지부(지부장 강남경)는 지난 10일 완도 한우명가에서 '다문화가정 친정어머니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다문화가정 주부와 친정어머니 및 결혼이민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군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친정어머니 및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농어촌 다문화가족 친정 고향방문 사업 일환으로 필리핀 출신 조세린(노화음)씨 등 두 가족을 선정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경 지부장은 "지역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힘든 여건에서도 어촌·농촌일에 잘 적응해 다문화가정을 이뤄 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다문화가정을 위해 더불어 사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여성들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힘든 여건에서도 어촌·농촌일에 잘 적응해 다문화가정을 이뤄 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다문화가정을 위해 더불어 사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unjung@



413m 해남김치, 기네스 기록 '성공'

지난 11일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울돌목에서 열린 '따뜻한 김치축제'에서 관광객들이 413m 길이의 '기네스 김치'를 만들고 있다.

이벤트 최장 김치만들기에는 해남산 절임 배추 4200여 포기(8.26t)와 무 등 양념 2이 소요됐다. /연환뉴스

광산구 조직개편 뒷말 무성

7·8급 4명 감소·5급 2명 신설, 행정서비스 차질 우려

광산구의회와 집행부간에 논란을 빚었던 '광산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이하 조직개편안)이 지난 10일 광산구의회에서 통과됐다.

구의 행정기구는 현행 4국2소1실1담당관20과(課)104담당(係)21봉에서 4국2소1실1관1단20과 106담당 21명으로 개편됐다.

구는 지난 10일 현행 기구조직에다 7급이하 하위직을 줄이고 5급 두자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으나 구의회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류시켰다.

이 과정에서 '의회결정', '집행부 갈등'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 안은 임시회에 상정조차 못했다.

이에 따라 구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공보관 및 문화체육관광사업소(이상 5급) 등의 신설을 폐기하는 대신 정책사업단(5급)·시설관리과(6급) 등을 신설하고 일부 과(課)를 통폐합하는 수정안을 제출, 구의회 17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 수정안은 연말이나 연초에 행정안전부의 '총액 인건비제'에 따른 정원조정과 어긋남 경우 조직개편을 재검토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

또 생활행정을 펴는 첨병이라 할 수 있는 7·8급에서 4명을 감소시켰고 결재라인이라 볼 수 있는 5급(사무관) 두자리를 신설하는 것은 대민 행정서비스에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서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rtee@

구 조직개편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으나 구의회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류시켰다.

이 과정에서 '의회결정', '집행부 갈등'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 안은 임시회에 상정조차 못했다.

이에 따라 구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공보관 및 문화체육관광사업소(이상 5급) 등의 신설을 폐기하는 대신 정책사업단(5급)·시설관리과(6급) 등을 신설하고 일부 과(課)를 통폐합하는 수정안을 제출, 구의회 17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 수정안은 연말이나 연초에 행정안전부의 '총액 인건비제'에 따른 정원조정과 어긋남 경우 조직개편을 재검토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

또 생활행정을 펴는 첨병이라 할 수 있는 7·8급에서 4명을 감소시켰고 결재라인이라 볼 수 있는 5급(사무관) 두자리를 신설하는 것은 대민 행정서비스에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서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rtee@

전남보건연구 내년 6대 연구시책 발표

전남 장수마을을 환경특성·해조류 기능성 등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정선호)은 2011년도 시책연구로 '전남 지역 장수마을의 환경특성'과 '전남산 해조류의 기능성' 등 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전남 지역 장수마을의 환경특성과 전남산 해조류의 기능성에도 한옥의 특성, 최근 우울증 치료와 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흙길(지오스민) 성분, 전통

식품(한과·약 등)의 우수성, 전남지역의 유명 산책로에 대한 공기질 조사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남만이 갖고 있는 친환경적 특성과 지역 생산 해조류 등 특산품에 대한 우수성 규명을 통해 청정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실용적 연구는 지난 2006년

(課)를 통폐합하는 수정안을 제출, 구의회 17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 수정안은 연말이나 연초에 행정안전부의 '총액 인건비제'에 따른 정원조정과 어긋남 경우 조직개편을 재검토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

또 생활행정을 펴는 첨병이라 할 수 있는 7·8급에서 4명을 감소시켰고 결재라인이라 볼 수 있는 5급(사무관) 두자리를 신설하는 것은 대민 행정서비스에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서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rtee@

부터 추진됐으며 대표적 과제로는 '전남산 천일염의 우수성'과 '전남 유명 술길 공기질 특성' 등이 있다.

연구 결과 광물로 취급됐던 천일염이 2008년 3월 식약청 고시 후 식품으로 공식 등록돼 1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 상승효과를 봤다.

정선호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연구 결과가 전남을 새롭게 알리고 도민들에게 편의 증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과제 선정의 적정성과 결과는 보건·환경분야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도있는 평가가 이뤄진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section for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All consultations regarding auctions) with phone number 062-236-3400.